

지역 **메아리**

전북은행, 선물꾸러미 전달식

전북은행에서는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5일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혼 혼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고 인직을 참여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2018 설맞이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은행 이영태 금융센터장, 고찬배 김제지점장이 직접 참석하여 김, 당면, 식용유, 밀가루, 설탕, 캔디, 치약, 세제, 리면, 간장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총 10종의 생필품이 가득 담긴 선물꾸러미를 직접 포장하여 관내 100세대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전달하였다.

이번 사랑의 열매 '이웃사랑 선물꾸러미'는 김제시 주민복지과(과장 서상원)의 추천으로 도움이 필요한 관내 지원대상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행정지원국 업무 보고회

지난 1월 30일자로 행정지원국장 직무 대리로 부임한 최기운 국장은 지난 2월 2일부터 3일 까지(이틀간) 행정지원과를 시작으로 11개 소관부서장 및 담당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새해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현안사항 공유와 소통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보고회에서는 2018년도 시정방침인 "세계로 도약하는 새만금 김제"에 발맞춰 시민중심, 시민이 행복한 김제 실현을 위해 주요시책, 현안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과 시민행복 체감지수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보건소 저염맛간장 만들기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2월 6일부터 28일까지 한달간 10개소 그룹-흥(경로당) 입소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순회 방문을 통하여 건강발상 지킴이 저염맛간장' 만들기를 실시한다.

이번 조리실습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계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심검제 먹기 식습관 형성 및 저염실천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저염맛간장 만들기, 자가 염도 모니터링등 나트륨 저감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금과 간장을 이용해 간을 비교해본 결과 저염맛간장을 사용하면 맛을 포기하지 않고도 나트륨을 60%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채소나 각종 과일을 넣어서 간장을 만들 경우 일반간장보다 나트륨은 적으면서 맛있고 풍미가 깊은 음식을 만들며 먹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3월 30일까지... 건축·교통·환경·보건복지 등 6개 분야

완주군이 관내 안전관리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완주군은 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건축, 교통, 환경, 보건복지 등 6개 분야 총 740여개소에 대한 2018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군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예방활동으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여부 안전관리체계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다.

위험시설 및 안전 취약시설은 공무원과 각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밖의 일반시설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주민들도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주변의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신고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대진단 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 및 행정지도를 통해 위험요소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완주군이 관내 안전관리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관리할 예정이다.

고재욱 부군수는 "안전 사각지대, 안전 취약요인 등을 꼼꼼히 살펴 전방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단이 되도록 적극적인 점검에 임해 달라"며 "군민들도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완주군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에 앞서 지난 2월 2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고재욱 부군수 주재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 점검 실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활동을 점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종합스포츠타운 내 테니스 경기장 '주목'

완주군, 올 8월 완공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 선수의 호주오픈 4강 진출에 따라 테니스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이 올 8월에 완공할 종합스포츠타운 내 테니스 경기장이 주목받고 있다.

5월 완주군은 오는 2026년까지 550억원(국비30%, 도비 10%, 군비 60%)을 투자해 군청사 인근의 용진읍 운곡리 일대 30만1000㎡에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은 우선적으로 총 사업비 60억을 투입해 올 8월까지 국제규격 16면의 테니스장, 클럽하우스를 조성할 방침이다.

완주군 종합스포츠타운 내의 테니스장은 완공 직후 오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익산시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의 테니스 경기의 주무대로 활용되며, 향후 전국 규모의 테니스 대회 개최, 각종 테니스팀의 전지 훈련장소로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최근 정현 선수가 호주오픈 4강에 진출하면서 어느 때보다 높



완주군이 올 8월에 완공할 종합스포츠타운 내 테니스 경기장이 주목받고 있다.

아진 테니스에 대한 열기와 관심을 충족시키는 최적의 공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테니스경기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완주군은 8월까지 공사를 마쳐,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에 공헌하고, 테니스 인구의 새로운 성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완주군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테니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 인

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정현 선수의 4강 진출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테니스에 대한 관심을 넘어, 완주군의 테니스장 조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앞으로 테니스장을 필두로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기한 내에 완공함으로써, 각종 체육행사 유치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실익증대 위한 각종사업 확대 도모

김제농협 당기순이익 15억5000만원 달성

조합원과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이 지난해 당기순이익 15억5,000만원의 성과를 거뒀다.

김제농협은 지난 2일 조합장을 비롯한 대의원, 조합원,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점 회의실에서 제45기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해 실시한 사업에 대해 결산 보고를 했다.

당기순이익은 15억 5,000여만원으로 지난해 13억원보다 2억5,000여만원의 당기순이익 성장을 했다. 특히 상호금융대출 부분에서 2년 연속 200억원 이상 증액하는 성과를 거두 순익달성에 큰 기여를 했다.

김제농협은 지난 해 예수금 2,683억원, 대출금 1,732억원 등 총 자산 3,304억원을 달성하고, 재총담금을 100%이상 적립하였으며 전기이월금 3억3,000만원을 더한 총 18억8,400만원으로 법정적립금과 사업준비금으로 5억7,200만원, 차기이월금으로 4억원을 적립하고 9억1,200만원의 출자 및 이용고 배당을 의결했다.

이어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이사 선출에는 대의원들의 찬반투표로 현 상임이사인 박한남 상임이사가 재선출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정용 조합장은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으로 좋은 결산을 마칠 수 있던 3,500여 조합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조합원 실익증대를 위한 각종사업 확대를 도모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조합원의 참여를 통한 실익증대 사업을 통해 농업인 복지증진에 동참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지난해 김제농협은 고추종자반값지원, 비육묘상처리제, 토양개량제살포비, 영농자재교환권 등 영농자재무상지원에 2억 5,000만원, 농비료와 무상항공 방제를 통한 논타작물재배지원에 3,800만원, 영농회·부녀회 등의 협동조직에 1억 7,200만원, 조합원의 최신정보 제공을 위한 간행물 보급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의의 사고와 재해에 대비한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에도 9,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또 지역인재 양성과 조합원들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3,600만원의 대학생자녀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실시 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조합원 종합건강진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봄철 산불예방 비상체계 돌입

완주군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비상체계에 돌입한다.

5일 완주군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해 5월 15일까지 105일간을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수립 등 봄철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방지 비상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군청 6층 산불종합상황실과 13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선발, 읍면 산불감시원 선정, 진화장비 등을 점검하고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상황실에는 완주군청 산림측산과 직원 20명이 4개조로 팀을 구성해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공휴일,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근무한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군 당직실과 연계해 야간산불 발생에 철저히 대비한다.

특히 올해 봄철은 평년 강수를 보다 적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완주군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40명의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편성하고 진화차량을 비롯한 200여점의 진화장비를 확보해 산불발생시 즉각 출동하는 초동진화 태세를 갖췄다.

또한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산불진화 공조체계 강화와 전략적 대응으로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 · 패럴림픽 (2.9~3.18)과 6.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4월 청명·한식, 5월 어린이날·식가탄신일 등 징검다리 연휴기간동안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